



포럼을 빛낸 VIP 참석자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가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이정희 메트로신문 상무, 이한태 금융투자협회 상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상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승중 메트로신문 편집국장. /손진영 기자 son@

# “밸류업 프로그램 시작이 ‘기회’... 주식투자 비중 확대해야”

강연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韓 부동산 자산 94%, 주식 비중은 낮아  
유망업종에 조선·의료 등 투자해야  
AI·로봇·자율주행 등 중장기적 주목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100세플러스 포럼'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등 한국 주식시장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배당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염 이사는 “해외 자본을 포함한 자본들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유입시켜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자본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서 주가지수 또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염 이사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자산이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전환하는 부의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조선, 의료, AI산업 유망

염 이사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가 상승에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의 이익”이라며 “기업들의 이익은 미국, 중국 경기가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중요한데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데다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가도 감소하고 있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염 이사는 “미국이 버터주고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등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5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금리를 6월에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좋은 데다 부동산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확 떨어져 있어 미국의 경기가 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미국 상황을 정리해 보면 금리 인하는 6월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이사는 올해 유망한 국내 업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규제에 조선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가 시행되면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 및 의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염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그 결과로 덴탈, 피부 미용, 당뇨병 치료제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무인화 등의 시장도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현금흐름·연금종류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후설계 필수”

강연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현금 부족하면 ‘주택연금’ 주목  
부동산 ‘현금화’ 합리적인 판단  
퇴직금 IRP 계좌 보관해야 강조

“자산관리란 험지를 해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탄한 인생을 원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돌을 만나면 터널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요한가? ▲내 연금 얼마나 되나?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하는 연금계좌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 등 은퇴 후 효율적인 자산관리 비법을 공유했다. 태풍에 대비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처럼 불확실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32만 원이다. 이를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로 확대하면 월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한 부부가 서울에서 양질의 삶을 지양한다면 매달 33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광역시 기준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는 203만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279만원이다.

문제는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직업이 있을 때 부부가 맞벌이를 했다면 은퇴 후에는 효율적인 ‘연금 맞벌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본인과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등이다. 부부의 연금이 최소 노후생활비에만 근접해도 현금 흐름 파악 등 별도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떨어진다.

부부가 연금을 합쳐도 최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특히 현금 보유량이 동년배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 시기가 분수령이다.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가 노후

대비의 ‘첫 고비’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반드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계좌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 면제 및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김 본부장은 “해발 8800m의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지점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 올 때인 정상에서 800m 지점”이라며 “주로 하산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데 퇴직 후 소득공백 시기가 하산과 똑같다고 인식하시면 된다”고 했다.

본인이 수령할 연금의 종류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3일 이내 연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부부가 받을 연금의 종류와 월 수령액을 확인했다면 ‘연금흐름표’를 만들어야 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